

## 한국 중국 호주 탁구대회에서 시드니 호스피스 팀의 우승과 감격



이달의 말씀 :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밭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16장21절-26절)

월간·140호

• 주소: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7/2-4 Mary St. Lidcombe NSW 2141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암환우와 그의 재화를 돕는

## 시드니 호스피스

2016

10

C · O · N · T · E · N · T · S

02 21세기 '호스피스'의  
생산적 재활복지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06 호스피스(SICA)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2016년 8월 27일 St Philips Anglican Church에서 모금 활동을 위해 주최한 한국 중국 호주 친선탁구대회에서 시드니 호스피스 팀(박인수, 김연화, 김영희, 김장대)의 우승과 감격을 나누는 모습

## 21세기 '호스피스'의 생산적 재활복지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 1. '호스피스'의 성경적 어원해석

21세기 post modern(후기현대)에는 과학과 예술의 발달로 '호스피스'의 개념을 어원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어원적으로 'hospice'는 'host'와 'guest'의 합성어로부터 파생되었다. Host(남성명사)와 hostess(여성명사)는 대부분 어떤 행사에서 손님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 혹은 그 행사기간 동안 숙좌를 위하여 몸을 주신 그 선행을 기념하는 성찬식의 빵을 'host'라고 한다.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제공자를 'host' 혹은 'hostess'라고 하는 반면에,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을 'guest'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hospice'라는 용어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 'host'와 그 친절을 받는 사람인 'guest'의 관계성에서 생성되었으며, 'host'로서의 예수님과 'guest'로서의 사람 사이에 이뤄지는 관계회복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화학적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우일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므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갖게 하고, 환우의 식생활개선과 운동을 돕고,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주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생각지 않았던 회생과 재활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환우에게 하나님의 자연치유 원리와 함께 약초의학과 영성의학으로의 접근 방법은 21세기 호스피스 사역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2. 자연치유적 전망

21세기에는 합성의약(Pharmacy compounding)이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 의약계에 혁명을 이끌고 있다. 합성의약이란 환자에게 맞춤형 약을 준비하는 예술과 과학을 말한다. 지난 20년 동안 합성 의약은 현대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 다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정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물을 환자에게 맞도록 약사들이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sup>1)</sup> 그래서 현대에는 자연식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들이 정부의 허락 하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소량의 성분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약국이나 마트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섭취한다.

합성의약은 자격을 갖춘 약사가 혼합 조제하든지, 혹은 개별 환자의 의료 요구에 맞는 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처방재료를 조정하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다. 호주에는 환자가 TGA(호주보건성이 인정하는 치료제 행정규정)로부터 승인된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합성의약이 보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자연치유의학으로 드라마 치유요법(Drama therapy)과 마사지 요법(Massage Therapy), 그리고 웃음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이 심리 및 영성치유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드라마 치유 요법은 영적인 삶의 균형과 창의성을 드라마나 연극을 사용하여 표현하도록 하므로 심리적인 성숙과 변화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도록 하여 심리를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드라마는 일상적으로 억압된 행동 보다는 훨씬 더 활력을 얻기 위하여 신체를 워밍업(warming up) 시키도록 우리의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자신을 발견하도록 자기반성과 자기관찰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 참가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은 한정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드라마이다"라고 의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참가자들은 어떤 적당한 역할 혹은 삶 속에서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http://www.pccarx.com.au/what-is-compounding>

편집실 \_ 시드니호스피스

그럴 때에 생각의 힘은 새롭게 발견된 사역에 활기를 찾게 한다. 때로는 마스크, 인형극과 동화이야기와 같은 은유적인 작품을 활용하여 영혼을 치유하는 자서전적인 지식을 불러일어킬 수 있다. 기원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극장-관객에 의하여 경험하게 되는 카타르시스"와 비슷한 경우인데, 오늘날에는 드라마 치유요법은 개별적으로 혹은 그룹 세션에서 더 민감하고, 활기차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마사지 요법 (Massage Therapy)의 경우, 예전에는 "피부를 문질러서 곱고 건강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피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과 혈액순환 등 치료요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에테르 마사지는 가볍고 여린 안마시술을 활용하여 특유의 흡입력을 높여, 신체 전반에 활력을 재충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마사지는 신체를 따뜻하게 하여 순환계통의 움직임을 자극하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연치유의학으로서 마사지 요법은 1920년대에 Dr. Ita Wegman 와 Rudolf Steiner 에 의해 개발되었고, Marguerite Hauschka 에 의해 뒤늦게 활성화되었다. 에테르 마사지는 영성 의학의 한 유형으로 시작하여 호주에서는 Ulrike Faeste 에 의하여 발전하였다. 주로 자연식물 오일이 광범위하게 약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마사지의 효과는 간과 신장과 같은 장기 조직의 활성화에 매우 유익하다.

**3. 약초의학적 전망**

미래의 약초의학 요법으로 피토테라피(phytotherapy)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피토테라피(phytotherapy)는 약초의학의 다른 용어로서 식물 요법을 통한 의약품 또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성분의 천연 추출물에 대한 연구이다.<sup>2)</sup> 피토테라피는 표준 약리학에서 사용하는 식물 의약품과는 다르다. 표준 약리학은 주어진 식물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활성 성분을 분리하는데 비해, 피토테라피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을 거쳐 식물로부터 복합적인 효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 피토테라피는 식물의 혼합과 합성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생리적 활성화를 방지하였으므로 약초의학과 동의어 혹은 많은 서양 의학에 의해 대체 의학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전통 약초의학의 범위는 때때로 꿀벌이나 버섯류까지 포함하고, 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조개껍질 혹은 동물의 어떤 부위도 포함하였다. 비록 서양 의학에서 알칼로이드(아트로핀, 모르핀 등)와 같이 식물 성분의 의약적 및 생물학적 효과가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지만, 의술에 있어 피토테라피의 효능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을 따르는 현대 피토테라피는 약초의학의 치료제 사용과 그 효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4. 영성의학적 전망**

창조의 섭리에 따라 성경의 치유 매뉴얼을 찾아가는 영성치유의학은 앞으로 의학계나 신학계에서 더욱 관심을 고조시킬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예로 들어 세탁기를 구입했다면 그 세탁기의 매뉴얼대로 조립하고 작동하면 세탁기 본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쉽게 고장 나게 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값비싼 벤츠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다닐지라도 도로에 70Km로 제한해 놓으면 70Km로 달려야 한다. 교통법규 매뉴얼대로 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성경의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고장이 나든지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성경의 매뉴얼을 무시하고 술과 담배와 음란과 방탕으로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고장이 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규정해 놓은 법규를 벗어나서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한다면 육신과 영성에 사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위) Bruce 목사님과 중국선수의 멋진 서비스 모습과 정신을 집중하는 박인수, 김연화 선수  
아래) Baptist Care 너싱홈 방문하여환한 미소와 함께 봉사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천사의 손길(2016년 9월 19일)

2) Braun L (2006). Dunning T, ed. Chapter 9: Herbal Medicines and Interactions with Conventional Medicines Used to Manage Diabetes. Complementary Therapies and the Management of Diabetes and Vascular Disease: A Matter of Balance (John Wiley & Sons). p. 211. ISBN 978-0-470-05742-1.

## History of SICA

20/8/2016 The Fourth Annual General Meeting (Location: Moji restaurant (Strathfield) Time:15:00)

Resolution: The establishment of Australia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ACCI) (Australia Hospice Association): Sydney Hospice (SICA) was voted to establish Australia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ACCI) in the 8th Committee, to broaden the hospice ministry in Australia party. Together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SICA

General Meeting of member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ACCI).

The Hospice Association of Australia (AACCI) elected the Committee Members as follows:

Chairperson / Public Officer(Representative): Jang Dae Kim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9/5/2016 1st Concert for celebrating Parents Day(Baptist Care Shalom Centre)

01/01/2016 Open SICA Home Page([www.sydneyhospice.com.au](http://www.sydneyhospice.com.au))

28/12/2015 1st Concert during Christmas Seasons (Baptist Care Shalom Centre)

24/10/2015 The Third Annual General Meeting (Location: Moji restaurant (Strathfield) Time:15:30)

Resolution: Without the correct Korean Name of "the Committee"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of SICA are used as the "Steering Committee(woonyoung wiwonhoi)" or "Board of Directors(yisahoi)" called names. As a result we have brought havoc to the organization operating. After the third Annual General Meeting the "Board of Directors (yisahoi)" has been disbanded, "the Committee" named in the Constitution of SICA decided to use as the same English word "the Committee" and also to receive a few new Committee Members. As an alias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 decided to use together with the public title "SICA."

30/09/2015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Keimyung University Daegu Dongsan Hospital hospice centre

25/09/2015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Kosin University Busan Gospel Hospital hospice centre

10/08/2015 New office settled on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onalpine St. Eastwood NSW 2122)

08/08/2015 The Second special general meeting (Venue: Moji Restaurant, Agenda: Vote of confidence for new representative, Rev Jang Dae, Kim): Rev Jang Dae, Kim for new representative (Chairperson /Public Officer), 96% in favor)

21/05/2015 Baptism of Mrs Young Ja, Hong (cancer patients, 83 years old) (Baptist Care Yallambi Centre - Carlingford Sydney)

02/04/2015 Former representative Rev Jong Moo, Byun resigned (Rev Jang Dae, Kim nominated for a new representative)

28/02/2015 Festival for Beach Walk 350 times

8/2011 Charity concert (Disabled invited from South Korea)

17/03/2011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as a name change (ABN/INC9894966)

04/08/2007 Cancer patients started walking along the beach (1st)

03/10/2006 Volunteers regular training (1st)

01/12/2006 Corporate Registration (Spring hospice)

01/07/2004 Newsletter published (No. 1)

01/04/2004 Launched from Sydney Branch of Korea Spring Hospice (Representative Rev Jong Moo, Byun)



First Aid Training (26<sup>th</sup> September 2016)

## Introduction of SICA

Sydney Hospice (SICA) was founded in Sydney Branch of Spring Hospice in Korea on January 4, 2004. With the support of Churches, organizations, private sponsors and volunteers in Sydney, SICA cares for patients with cancer that is difficult to treat using modern medicine. Sydney Hospice provides activists such as sea-side walks every Saturday, a variety of health seminars to share the joy of recovery, a volunteer training program,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 for the health of Korean immigrants in Sydney. Sydney Hospice develops and maintains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associated activities.

The spirit of Sydney's Hospice (SICA) is based on Christian ethics that is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Mathew 10:8) The morality in contemporary society is conducted with the teachings of Confucius who said, "Do not let to others what he does not want."

This volunteer spirit of Sydney hospice (SICA) is a small movement spreading peace to patients with cancer and their neighbours in Sydney.

This exercises our mind that is "to thank, to share, to serve" in our daily lives, as Shalom (or peace) movement. Namely, by working hard at work, by thanking to God and neighbor, and by sharing what we have with one another, we can serve one another life in a small light of the community. We want to practice them. As we practice them together, we will become grains of transformation for making the assumption of health family community within cancer patients' family, for creating a peace community between church members within the churches, and for making Korean immigrant society as a trusted community.

### <Activities>

We striv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who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help make a wise choice for a good treatment and healing. We recommend the healing methods base on the creative principal of the human beings, can introduce and meet the healed and being healed patients. We are not only supporting the patients' needs but also encouraging them to have a hope and expectation for their recovery and rehabilitation.

While we strive the meet the needs of patients, we go one step further to encourage the patients and have hope. We encourage treatment methods on the "Creation principle" as we believe in creation, and introduce many cases where patients got better using this method. We strive to do our best within the boundary of hospice regardless of the patient's religion. While Christian faith is not forced, we share it has actually helped in healing.

- **We serve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We provide translation service, counseling and other helps for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 **We assist the therapy:** Having meeting with the healed and being healed patient; Psychology therapy is very important for recovery, thus we give them delights with laughter therapy, music therapy, art therapy etc.
- **We help the community be aware of health improvement:** The patients and volunteers (and community) walk the beach together so that the volunteers (and community) improve their health at the same time. Music concerts are irregularly opened in nursing home at the special days.
- **The Education of the volunteering and medical science:** Attitude of helping the weak in hospice and the biblical principle of physical health improvement are encouraged through various education programs.
- **Liaising with the community:** We work together with the community. We publish monthly magazines, "New Hope New Life". We hold annual events to give a new hope for the patients and raise health awareness in the community.
- **SICA promotion for fundraising:** Distribute SICA Monthly newsletter [Sydney Hospice].
- **We support the deathbed and funeral and the bereaved family:** We help look for budget conscious funerals and assist funeral for cancer patient family. We help the bereaved family recover and get back to normal life.

### <Patients Recovery and Health Improvement Programs>

- **Walk on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Every Saturday 10 am on Circular Quay Wharf 3
- **Psychological Healing-** at the Beach with cancer patients every Saturday
- **Health Improvement and Disease prevention through seminars** - Once in a fortnight
- **Regular Prayer Meeting for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Every Monday in our office
- **Concerts in Nursing Homes-** Irregularly



# 시드니 호스피스(SICA)에서 알립니다.

시드니 호스피스(SICA)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할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 시드니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6.8.20 제4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결의사항:제8차 Committee에서 Australia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ACCI)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고, 호주 전역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넓히고자 호주 호스피스 협회(AACCI) 설립을 총회에서 추진 함.  
호주 호스피스 협회(AACCI)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 김장대,  
Treasurer(재정): 송정희, Secretary(총무): 성순자,  
Audit(감사): 조철호
- 2016.5.9 제1회 어버이 주간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6.5.3 자연재활치료실 개장(장소:본회 사무실)
- 2016.1.1 SICA Home Page 개설(www.sydneyhospice.com.au)
- 2015.12.28 제1회 성탄 송년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5.10.24 제3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30분) 결의사항: 그동안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 에 대한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이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조직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제3차 정기총회 이후 "이사회"는 해산되고, "이사회"란 명칭사용을 금하며,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라는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Committee Member 를 받기로함. 별칭으로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를 사용하기로 함.)
- 2015.9.30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9.25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8.10 새 사무실로 이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 2015.8.8 제2차 임시총회(장소:모지식당, 의제:김장대 목사 대표선임)(대표(Chairperson, Public Officer): 김장대 목사 선임, 96% 찬성)
- 2015.5.21 암환우 홍영자(83세) 세례식 (Baptist Care Yallambi Centre-Carlingford Sydney)
- 2015.4.2 제2대 대표로 김장대 목사 선임(Chairperson/Public Officer) (변종무 대표 사임)
- 2011.8 한국 장애인 초청 자선 콘서트
- 2011.3.17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명칭변경(ACNC:ABN 87157916417)
- 2007.8.4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시작 (1회)
- 2006.10.3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실시시작(1회)
- 2006.12.1 법인등록 (샘물호스피스)
- 2004.7.1 소식지 출간
- 2004.1.4 한국 샘물호스피스회 시드니회로 출범 (대표 변종무 목사)

##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 [정기상담] •일시: 월,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 ● 암환우를 위한 특별 중보기도 봉사자 모집

시드니 호스피스(SICA)에서 2016년 후반기 암환우와 그의 가족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함께 모여 특별히 기도하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대상: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12:00
- 장소: St. Phillip's Anglican Church (cnr. Shaftsbury Rd & Rutledge St. Eastwood)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 문의: 0430 370 191(대표 김장대)

## ● 시드니 호스피스(SICA)와 해외협력기관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정기려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 시드니 호스피스 무료 자연재활치료실 개장

2016년 5월 3일 시드니 호스피스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자연재활치료실을 개장 하였습니다.

- 장소: 본회 사무실 옆 교육관 공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reet Eastwood NSW 2122)
- 사용시간: 매주 월~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 준비물: 큰 타올 2개, 갈아입을 면옷과 양말
- 유의사항: 홈페이지 교민 알림에 공지 (<http://www.sydneyhospice.com.au>)

## ● 제 1 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교육

- 일시: 2016년 9월 26일 ~ 10월 6일(월~목)
- 장소:본회 사무실(홈페이지 참조)

##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 (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후원계좌명 (Account Name):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 Bank    | BSB No. | Account No. |
|---------|---------|-------------|
| ANZ     | 012-401 | 1859-55523  |
| Westpac | 032-069 | 389575      |
| NAB     | 082-451 | 19-458-1666 |

\* 정성어린 후원금은 시드니 호스피스(SICA)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소식지8월 2016 회계 자료 |                          |      |           |        |       |
|------------------|--------------------------|------|-----------|--------|-------|
| 수입               |                          |      | 지출        |        |       |
| 항목               | 이름                       | 금액   | 항목        | 금액     |       |
| MEMBERSHIP FEE   | Cheol Soo Song           | 10   | 통신비       | 69.35  |       |
| "                | Jungsook Choi            | 10   | 인쇄홍보비     | 951.3  |       |
| "                | Hye ok Beak              | 10   | 차량유지비     | 71.05  |       |
| "                | MyungJa Kim              | 10   | 관리비       | 66     |       |
| "                | Moon Ja Eun /Un Beronica | 10   | 식대및 부식비   | 678.5  |       |
| "                | Byungsook Lee/ 테레사       | 20   | 경조비       | 100    |       |
| "                | Ok kyung Kim             | 20   | 행사및 세미나   | 116.5  |       |
| "                | Jong se Kim              | 10   | 사무용품      | 0      |       |
| "                | In Hee Lee               | 10   | 회계사.변호사   | 1100   |       |
| "                | Dong LyeLee( 신)          | 30   | 보험료       | 0      |       |
| "                | Bong soo Lee             | 30   | water     | 0      |       |
| "                | Ea Sun Jung              | 50   | First aid | 2500   |       |
| "                | Kyung Mok Min            | 20   | Total     | 5652.7 |       |
| "                | SoonJa Sung              | 110  |           |        |       |
| "                | Jangdae Kim              | 110  |           |        |       |
| "                | Sarang Kim               | 10   |           |        |       |
| "                | Elhis Kim                | 10   |           |        |       |
| "                | Bok Kyung Kim            | 10   |           |        |       |
| "                | Bok Hee Choi             | 50   |           |        |       |
| "                | Jin Geun Yoon            | 50   |           |        |       |
| "                | Choo Yeal Lee            | 50   |           |        |       |
| "                | Jung Ja Choi             | 70   |           |        |       |
| "                | Junkun Choi              | 20   |           |        |       |
| "                | Hyo Jin Bae              | 120  |           |        |       |
| "                | Youn Hwa Kim             | 30   |           |        |       |
| Donation         | Oh Ryong kim             | 200  |           |        |       |
| "                | Dongsan                  | 210  |           |        | 은행 입금 |
| "                | Jun July ABC Education   | 1000 |           |        | 은행 입금 |
| "                | sydneylightandsalt       | 300  |           |        | 은행 입금 |
| 31/08/2016       | Total                    | 2590 |           |        |       |

건강 상식

혈액형이 B형, AB형인 사람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센터 연구팀은 2006년 2월~2014년 5월 소화기센터에서 비분문부(non-cardia) 위암 진단을 받은 환자 997명과 대조군 1천147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비분문부 위암은 식도와 위가 접해있는 주머니 모양(분문)을 제외한 위의 나머지 부분에서 발생한 암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헬리코박터'(Helicobacter)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비교 분석한 결과 ABO식 혈액형 중 B형 유전자가 들어 있는 B형과 AB형 환자군은 다른 혈액형 환자들보다 위암에 걸리는 확률이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 ABO식 혈액형은 두 가지 유전자 조합에 의해 분류되는데 B형 유전자가 2개인 B형(BB)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 46%, B형 유전자가 1개인 B형(BO)형과 AB(AB)형은 27% 위암 발생 위험이 낮았다. 특히 B형(BB)에서는 암세포가 깨알같이 작은 크기로 군데군데 퍼지면서 생기는 '미만형 위암'의 발생률이 다른 혈액형보다 6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암 발생률은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감염됐다고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감염된 환자 중 균을 없애는 제균치료를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약 65%가량 위암 발생 확률이 낮았다. 특히 발견과 치료가 까다로운 미만형 위암 환자군에서 위암 발생률이 80%나 줄어드는 등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활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SICA 홍보활동
  - SICA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민들의 기부금과 교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 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시드니 호스피스"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을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겸손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9월의 여유있는 삶

성공학(成功學)의 세계적인 대가, 데일 카네기를 아십니까? 그는 세일즈맨이던 젊은 시절,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실적이 곤두박질쳐서 어느 달에는 성과가 전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채, 세상 모두가 자기를 알보고 방해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조차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는 그림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 창문 너머로 한 폭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불꽃없이 놓인 낡은 나룻배 그림 한 장! 그는 감전된 듯이 걸음을 멈추고 그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그림은 아마추어가 그린 보잘 것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네기의 눈이 그림의 하단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카네기는 여기에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인생 전환의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지금이 나에게서 주위의 모든 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롭고 힘든 기간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희망이 밀물이 나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당신의 배가 지금 모래 위에 처량하게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밀물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배를 해안가에서 저 넓은 대해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노를 열심히 저어서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섬으로 가십시오. 혹여 비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높다고 다시 배를 돌리지 말고 파도도 높고 비바람도 당당히 맞으며 당신의 섬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에 당도할 때쯤 당신의 귀머리리는 희끗 희끗하겠지요. 그럴 때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아쉬워하지 않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 ◎ 발행처: 시드니 호스피스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 ACNC(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 주 소 :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 o b : 0430-370-191, 0416-758-272
- E-mail: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sydneyhospice.com.au
- 발행날짜 : 2016년 08월 27일
- 발행 / 편집 : 김장대